

“광주, 빅데이터 댐·국가 AI 거점기지로 만들겠다”

안도걸 기재부 차관, AI 활용 차·에너지·헬스케어 혁신제품 창출 전남도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산업’ 간담회

기획재정부 차관을 국가 AI(인공지능) 거점 기지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전남도와 함께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산업’ 간담회를 열고 청년 기술인력 양성과 기업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6일 광주 동구 AI 창업캠프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에너지클러스터를 방문해 “광주를 명실상부한 빅데이터 댐과 국

가 인공지능(AI) 거점기지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방문에서 광주 AI 집적단지 조성 등 재정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안 차관은 “광주를 선도적인 AI 집적단지로 집중적으로 조성해나가겠다”며 “올해 데이터 센터를 착공하고 내년에는 실증 장비 77종 구축 완료, 2024년까지는 컴퓨팅 자원·데이터·대형 실증 장비 등 AI 핵심 인프라 집적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차관은 또 “2024년 집적단지 구축 이후에 대비한 2단계 발전방안도 마련하고, 자동차·에너지·헬스케어 등 지역 3대 특화산업 분야에 집중해 AI를 활용한 혁신적 제품과 서비스가 창출되도록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차관은 특히 광주 AI 사관학교를 혁신적인 사례로 평가하면서 “지역 수요에 기반한 AI 중·고급 인재 양성 사업에 재정투자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지역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내년 예산에 신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 기업 AI 솔루션 개발·실증사업 지원

대상 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등 지역 선도 AI 융합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지능형 CCTV 등 생활 밀착형 지능정보기술 활용사업 지원도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안 차관은 같은 날 광주 동신대 메이커스페이스에서 산·학·연·관이 참석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산업’ 간담회를 열고 청년 기술인력 양성과 기업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획재정부, 교육부, 지자체, 대학 등 관계자는 인재 양성 방향에 대한 교육부의 정책, 광주·전남 지역 혁신사업 추진 현황,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

눴다. 광주·전남 지역혁신사업은 광주시, 전남도를 비롯 도내 15개 대학교와 32개 혁신기관이 참여해 인력양성, 기술개발, 기업지원 등을 하는 사업이다. 대학이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청년의 지역 정착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 국비 480억원, 지방비 204억원 등 총 684억원을 투입한다.

전남도는 안 차관에게 현안사업인 ▲여수~남해 등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 ▲초강력 레이저센터 설립 ▲김치 전문생산단지 조성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추진 등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국가계획에 반영할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혁신 조달제품 호남권 전시회 조달청의 혁신 조달제품 호남권 전시회가 16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김정우 조달청장(가운데)을 비롯한 내빈들이 호남지역 혁신기업 등에서 내놓은 물품들을 관람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화순백신폭구에 ‘K-바이오 랩허브’ 구축을”

구복규 도의원 발의안 채택

전남도의회가 ‘K-바이오 랩허브’ 사업 구축 대상지로 화순백신폭구읍을 선정해야 한다고 건의하고 나섰다.

16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구복규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사진)이 발의한 ‘K-바이오 랩허브 전남 구축 촉구 건의안’이 제353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코로나19 유행이라는 보건 위기 속에서 바이오 산업의 중요성이 커지자 정부는 바이오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 대상지 공모에 나섰다. 전남도는 국내 유일의 백신산업 특구인 화순백신폭구읍을 선정했다.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은 2031년까지 사업비 3350억원이 투입해 치료제·백신 벤처기업 육성 기관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신약개발 창업 기업 입주공간 조성, 실험·연구, 임상·시제품 제작하고,

산업계·학계·연구단체·병원 협력 등을 한 공간에서 종합 지원하는 환경을 갖춘다. 오는 21일부터 2일간 현장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7월 중 후보지를 확정하는 일정이다. 구복규 의원은 “화순백신폭구는 신약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부터 생산까지 전(全)주기 기반이 구축되어 있고, 총 166만㎡의 부지와 대학·대형 병원이 인접해 있어 충분한 연구·의료 인력이 확보돼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첨단의료복합단지과 같은 대형 연구시설이 수도권과 충청권 등 범수도권에 편중되어 호남권에는 국가 대형 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정부는 사업지 선정 과정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남도,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 잔결음

2개 대학·7개 연구기관과 협약

전남도는 16일 국가대형연구시설로 추진하는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 2개 대학, 7개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다자간 업무협약을 했다.

이날 전남도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윤의준 한국에너지공단 총장, 김기선 GIST 총장, 노도영 기초과학연구원장, 박현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박상진 한국기계연구원장, 정진경 국방과학연구소 부소장, 강성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소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 적극 협력 ▲레이저 기반 기초과학 연구 및 산업 활성화 ▲장비 및 연구정보 공동 활용 ▲전문인력 교류 및 양성 등 대형 레이저 연구시설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 함께하기로 했다.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은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의 하나로 추진하는 국가대형연구시설이다. 국가균형위원회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이다. 초고출력과 고에너지 레이저를 기반으로 기초과학뿐만 아니라 반도체·광학소자·나노부품 초미세 가공, 우주·항공용 금속 개발, 레이저 무기 및 의료기술 장비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발전을 이끌 국가 필수시설이다.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의 차세대 에너지 공동 연구를 통한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에너지밸리 구축 등 지역 산업 상승효과를 불러오는 한편 해상풍력, 미래전력 등 국가 신산업을 육성할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번 협약에 참여한 대학과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기초과학, 에너지, 우주, 국방, 전기,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레이저를 활용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에 한 발짝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지역 과학기술의 중심인 한국에너지공단, GIST 총장과 여러 정부출연 연구기관장들께 감사하다”며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을 빠른 시일 내 구축해 지역을 넘어 국가의 과학기술 및 미래 신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와 한국에너지공단, 나주시는 공동으로 지난 2월부터 초강력레이저 연구시설 구축을 위한 타당성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용역을 통해 초강력레이저 연구시설 구축의 필요성과 함께 중점 연구 분야, 국내외 사례를 분석해 중앙부처를 설득하는 등 전남에 반드시 구축되도록 대책을 이어갈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산사태 위험지 1400곳에 5년간 3000억 투입

전남도 ‘사방사업 5개년 계획’

전남도는 산사태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향후 5년간 3000억원을 투입하는 ‘사방사업 5개년 계획(2021~2025년)’을 수립했다. 산사태 피해 우려지역 1400개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예방 사방에 나선 계획이다.

사업 대상지는 지난해 8월부터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산림 주변 생활권 위험지역을 전수조사해 사방협회 및 산림재해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산사태 취약지 787개소, 생활권 위험지 613개소다.

앞으로 5년간 산사태에 따른 산림재해 사전 차단을 위해 ▲계곡 내 상류에서 내려오는 토석류를 차단하는 사방담 413개소 ▲계류의 유속을 줄이고 침식을 방지하는 계류보전 683km ▲생활권 내 산지 붕괴침식을 방지하는 산지사방 227ha 등 사방 시설 6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관련 사업비 확보

를 최우선과제로 삼아 국회와 중앙부처 방문을 통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올해 220억원을 들여 94개소를 추진하는 안전하고 품질 높은 사방사업과 331억원을 들여 201개소에 추진하는 산사태 피해 지역 복구 사업에 대해서도 위기 전 결실한 마무리를 위해 사업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오득실 전남도 산림보전과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 다발성 태풍 등 산사태 발생 위험이 날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민 생활권 주변의 산사태 위험요인을 사전 차단토록 사방사업 5개년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산사태 피해 우려지역 주민 9489가구에 대해서는 1482개소의 대피장소를 지정해 사전 대피 체계를 강화하고 산사태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예방교육도 철저히 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폭구

행복이벤트

응모기간 2021년 3월 8일 ~ 12월 31일 **추첨** 2022년 정기총회(22년 1월 예정) **행시대상** 신규 및 기존 거래자

응모방법 유니온 정기적금개설, 체크카드20만원 이상 이용, 출금자동이체, 신헌 공제가입, 공과금자동이체 및 계좌이동제, 신헌계좌카드발급, 사업자 결제계좌, 연금자동이체, 사회적 예탁금 등

※ 중복응모가능, 동일 항목당 최대 2매까지(응모방식은 창구방문)

파워정기예탁금 I형, II형

12개월 연 1.7% 세전/만기해지

18개월 연 1.77% 세전/만기해지

2020년도 출자금 배당을

2.97%

출자금은 예금보유대상이 아니고 조합 경영성 손실이 발생할 경우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으며, 출자금 배당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1)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신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2) 이 금융상품을 계약 하시는 경우 상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 3) 예탁금 및 저축금은 신헌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 4)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비과세종합저축 가능합니다.
- 5)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 시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됩니다.
- 6) 금융상품 관련 상담 및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신폭구 영업점 및 아래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세공과금(22%)은 당 신헌이 부담하며, 경품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신폭구영업점 및 홈페이지 등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흥본점 266-4150 (광주 북구 문흥로 38)

매곡지점 572-4150 (북구 설죽로 315번길1)

양산지점 573-4150 (북구 양산로 59)

침단지점 576-4150 (북구 침단신로9번길29-2)

운암지점 528-4150 (북구 북문대로 88)

동광주지점 264-4150 (북구 동문대로 187)

동림지점 513-4150 (북구 북문대로 238)

각화지점 263-4150 (북구 동문대로 283, 285)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폭구**

신협중앙회 심의필 제2021-6호(2021.05.28.) 유효기간 2021.12.31.까지